



불턴 이청용(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한국시간) 영국 불턴 리복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09-2010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 후반 19분 이반 클라스니치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트로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청용 시즌 3호골 폭발

## 웨스트햄전 3-1 승 견인... 박지성은 결장

이청용(21·불턴)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호골을 터트렸다.

이청용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불턴 리복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09-2010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 후반 19분 이반 클라스니치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트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지난 13일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했던 이청용은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고 지난 10월26일 에버턴과 경기 이후 51일 만에 정규리그 3호골의 기쁨을 맛봤다.

불턴은 이청용의 선제골이 터지고 나서 후반 24분 웨스트햄의 알레산드로 디아만티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선제골 도움의 주인공 클라스니치와 케리 카이힐이 연속골을 넣어 3-1로 승리, 7경기 연

속 무승(2무5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3경기 연속 풀타임을 뚫은 이청용의 집중력과 팀플레이가 돋보인 경기였다.

전반 중반 왼쪽 날개로 자리를 옮긴 이청용은 전반 40분에도 쇄도하던 클라스니치에게 정확하게 볼을 내줬지만 클라스니치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첫 번째 공격포인트 기회를 날렸다.

이청용은 후반 6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과감한 중거리슈팅을 노렸지만 골대를 향하지 않았고, 후반 14분 매튜 테일러의 크로스를 받아 시도한 헤딩슈팅은 골키퍼 가슴에 안겼다.

후반 19분 미드필드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 두 명 사이를 뚫고 돌진한 이청용은 클라스니치에게 볼을 내주고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쇄도했다.

순간 클라스니치가 곧바로 볼을 밀어

줬고,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패스를 받은 이청용은 뛰어오르는 골키퍼를 피해 침착하게 반대편 골대를 보고 오른발 슈트로 웨스트햄의 골 그물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클라스니치의 결승골 역시 이청용이 시발점이 됐다.

이청용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케리 카이힐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강하게 슈팅을 시도했다. 카이힐의 슈팅이 골키퍼가 제대로 잡지 못하자 클라스니치가 재빨리 뉘아체 결승골을 터트렸다.

한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은 이날 올버햄프턴과 정규리그 홈 경기에 교체멤버로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고 결장했다.

맨유는 전반 30분 웨인 루니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시작으로 전반 43분 네마나 비디치의 헤딩 추가골과 후반 21분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썩기골까지 이어지며 3-0으로 이겼다.

용에 대해 "대단한 골"이라는 찬사와 함께 양 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점을 줬다.

특히 스카이스포츠는 도움을 기록했던 지난 13일 맨체스터시티와 경기에서 이어 두 경기 연속 이청용에게 양팀을 통틀어 최고 평점을 주면서 이청용의 실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 "대단한 골" 이청용 양팀 최고 평점 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호골을 터트린 이청용(21·불턴)이 2경기 연속 최고 평점의 주인공이 됐다.

이청용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불턴 리복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웨스트햄과

2009-2010 프리미어리그 시즌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9분 선제골을 터트리며 3-1 승리의 주역이 됐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풀타임을 뛰면서 선제골까지 넣은 이청

# 광주시 '장애 체육인 전용' 특장차 운행

## 2억2천만원 들여 휠체어리프트 장착 47인승 구입

광주지역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장버스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광주시는 16일 "장애인 체육인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47인승 전용 대형특장차를 2억2천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들여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는 오는 21일 시청앞 문화광장에서 장애인 선수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특장차 시승식을

개최 예정이다.

앞으로 전용특장차는 장애인 선수들의 각종 전국대회 참가나 생활체육 참여 등에 집중 지원돼 선수들의 안전한 이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브라운사에서 제작한 이번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버스는 기존 장애인 특장차의 좁아식 리프트 대신 매립형 리프트를 설치해 휠체어 장애인이 안전

하고 빠르게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으며, 휠체어 탑승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이 탑승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운행하고 있다.

특장차 운행·관리를 맡은 광주시장에 인체육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운행 계획은 아직 미정이지만 장애인 선수와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장애인들의 체육 시설이 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노선 운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조오련 기념비 모교 양정고에 우뚝

지난 8월 타계한 '아시아의 물개' 고(故) 조오련씨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모교에 세워진다.

양정중·고등학교 총동창회는 18일 고인의 모교인 서울 양천구 양정고등학교 교정에서 추모 기념비 제막식을 연다.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기념비는 정면에서 봤을 때 높이 2m, 폭 60cm로 기념비 윗부분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고인의 얼굴 동판이 붙어 있다.

동판 아래에는 고인이 평소 자주 하던 말인 '무모할지도 모르지만 시작하는 순간 도전이 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으며 반대편에는 약력이 적혀 있다.

기념비는 고인의 양정고 55회 동기들이 낸 성금으로 제작됐다.

해남 출신인 고인은 1969년 양정고 2학년 때인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우승하며 '아시아의 물개'란 애칭을 얻었고 4년 뒤 태어난 아시안게임에



서 같은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고인은 지난 8월 심근경색으로 57세에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 광산구청 양정임 아쉬운 銀

## 전국태권도대회 女 73kg급

광주 광산구청 양정임이 2009년도 전국 남녀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겸 2010년 국가대표선수 선발예선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양정임은 16일 전북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경기 여자부 -73kg급 결승에서 오혜리(한국체대)에 7-11로 패해 어렵게 2위에 그쳤다.

여자부 -67kg급에선 김지혜(광산구청)가 준결승에서 황경선(고양시청)에게 2-7로 저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또 -62kg급 준결승에선 박해진(조선대)이 유미진(용인대)과 접전을 펼쳤으나 9-11, 2점차로 아쉽게 결승 문턱서 고배를 들고 말았다. /서승원기자 swseo@



17일(목)

▲09/10 NBA(LA레이커스 : 밀워키) (10 : 00·SBS스포츠)

▲제14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 : 10·KBS1)

▲09/10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 : 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09/10 V리그<흥국생명 : 현대건설>(16 : 40·KBS n스포츠) <대한항공 : 신협상무>(18 : 40·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KCC : KT)(18 : 50·MBC ESPN) <LG : SK>(19 : 00·SBS스포츠)

▲2009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5,6위 결정전)<대한민국 : 덴마크>(22 : 00·KBS n스포츠)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마라도나 "태권축구 허정무 생생히 기억"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과 같은 B조에 속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허정무 한국 대표팀 감독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인터넛 홈페이지는 16일 "마라도나 감독이 최근 아르헨티나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연히 허정무 감독을 잘 기억하고 있다. 1986년 한국 선수들은 우리를 상대로 축구라기보다 태권도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 한국-아르헨티나 경기에서 허정무 감독은 마라도나 전담 마크맨으로 나섰고 거친 수비로 여러 차례 마라도나를 그라운드 위에 나뒹굴게 했다.

AFC 홈페이지는 "1986년 6월2일 멕시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모든 시선은 마라도나에게 쏠려 있었지만 그 시선들은 곧 허정무 감독에게 옮겨갔다"며 "당시 마라도나는 허정무의 거친 태클에 생사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홈페이지는 허정무 감독이 지난 10일 대표팀 전지훈련 예비명단 발표 당시 했던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다. 예선에서 힘겹게 올라왔다고 해도 아무도 아르헨티나를 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보다 우월하다. 그들의 스피드와 템포를 줄이며 역습을 노려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Maeil Hanu' (매일매력한우) featuring images of beef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Sungil' (승일) featuring images of a building and promotional text.